

## 증계 쿼터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 절실



### ▲ 최성갑 위원장

1978년 도원농장 대표  
1988년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석사  
1999년 본회 이사(15, 16, 17대)  
2003년 경기도 가축방역 예찰위원  
2008년 본회 증계부화분과위원장 및 부회장

3년간 양계협회를 이끌어갈 제 18대 회장단이 출범하면서 증계부화분과 위원장에 최성갑 사장이 선출되었다. AI 발생 등 증계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증계부화업계를 이끌어 갈 최성갑 위원장을 만나 분과위원회 운영방안을 들어보았다.

### 시장 재편을 위한 증계 쿼터제 필요

최성갑 사장은 경기도 화성과 예산 지역에서 증계 약 5만수를 사육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20년전인 1978년 도원농장을 설립하고 증계업을 하면서 1999년부터 본회 이사를 역임해 왔고 HPAI가 처음 국내에 발생한 2003년부터는 경기도 가축방역 예찰위원으로 선정되어 본회는 물론 지역의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 확산추세에 있는 AI가 경기도까지 북상하면서 농가들이 큰 혼란에 빠지고 있으며, 무분별한 방송보도, 특히 살처분 장면 등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적

으로 방송되는 것은 양계산업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협회 임원은 물론 관련업계에서 신중한 방송이 보도될 수 있도록 감시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최성갑 사장은 종계산업이 계열사들에게 예측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종계(원종계 포함) 쿼터제를 통해 산업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종계업계는 90% 이상이 계열화에 흡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힘의 논리에 의해 불균형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무 쿼터제를 통해 일반농가와 계열사들의 비율을 50%씩 균형을 이루게 하면 독점체제를 견제하여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또한 계열업체들이 적정량인 100%가 아닌 110% 이상씩의 물량을 확보하고 시장을 공략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매년 과잉생산으로 농가들이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을 재편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순수 종계인들이 참여한 회의 주도

1달에 1번씩 개최되는 종계부화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이제는 순수한 생산자들만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갈 뜻을 밝혔다.

최성갑 위원장에 의하면 이는 결코 계열사들을 배제하자는 차원이 아니며, 생산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방책이라 설명하고 있다. 즉, 최근 종계의 대부분이 계열사들에 예측되다 보니 마음대로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도 계열사 관계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회의에서는 선뜻 내놓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종관협(종계관련협의회)에서 계열사들과의 대화의 창이 있었듯이 이러한 기구를 활

용하면 언제든지 계열사들과 의견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화의 창을 열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 종계·부화장 위생관리 철저히 경쟁력 제고

정부에서 최근 종계·부화장 관리요령이 검토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종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뜻을 밝혔다.

관리요령에 나타났듯이 종계장에서의 가금티푸스 백신은 절대 해서는 안되며, 하는 농장들은 철저히 색출하여 제제를 가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백세미 생산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도 종계에 준하는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지난 1990년대 처음 백세미가 창궐할 때 종계부화산업발전협의회 총무를 맡아 백세미 근절을 크게 외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묵인과 계열사들의 물량 확대로 이제는 산업화가 된 상황에 대해 개탄할 수 밖에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금번 HPAI가 처음 발생한 전북 김제 지역은 백세미 집산지역으로 수정사들의 왕래 및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큰 만큼 이 기회에 백세미를 없애고 대체품목을 개발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해 본회에서 신정부에 정책건의한 '안전한 삼계탕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성갑 위원장은 현재 협회에서 정부의 위임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종계 DB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농가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앞으로 종계업계는 물론 양계협회 부회장으로서 협회의 위상을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아가기로 하였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poultry.or.kr)